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
설명자료

대전지방기상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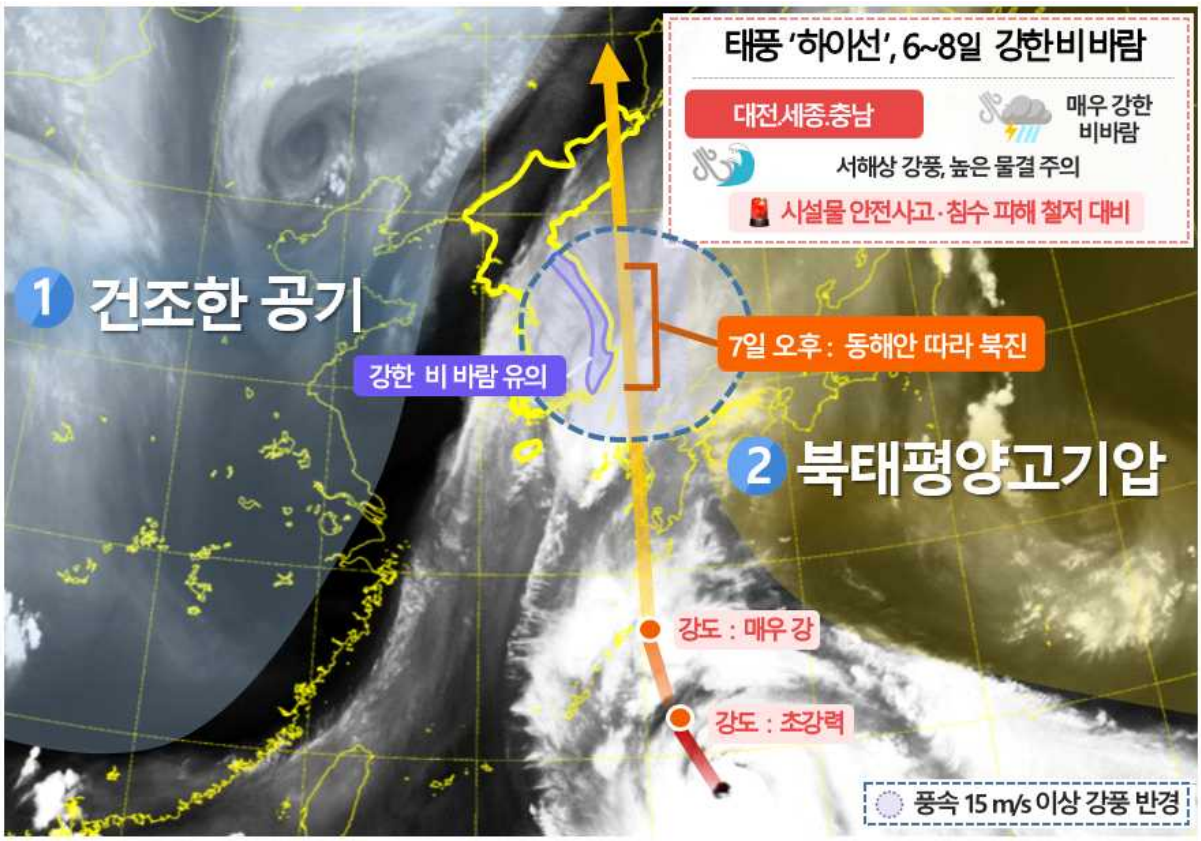
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일시	2020. 9. 5.(토) 18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		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 보 과	담 당 자	과 장 유 용 규 전문관 박 찬 귀	전화번호	042-363-3599

태풍 '하이선' 영향, 7일 오전부터 8일 오전까지 대전·세종·충남 강한 비바람

○ 예상 강수량: 50~100mm

○ 최대 풍속: 시속 36~108km(초속 10~30m)



[제10호 태풍 '하이선'의 6~8일 예상진로]

[태풍 현황과 전망]

□ **(현황)** 제10호 태풍 '하이선(HAISHEN)[1]'은 5일(토)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.

○ 중심기압은 915hPa, 강풍반경은 약 500km, 중심최대풍속은 시속 198km(초속 55m)를 보여 초강력의 강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.

□ **(예상진로와 강풍반경) 7일(월) 아침에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**를 경유한 후 **오후에 동해안을 따라 북진**하여 지나겠습니다. 이 시기의 강풍반경[2]은 약 360~400km로 **대전·세종·충남도 태풍의 영향권**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이후 동해상에서 북진하면서 8일(화) 새벽에 함경도 해안에 상륙하겠고, 오후에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되겠습니다.

□ **(예상강도)** 6일(일) 오전부터 태풍의 발생지보다 수온이 다소 낮은 28℃ 안팎의 해역을 이동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겠으나, **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도 945hPa 안팎의 매우 강한 강도**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현재 30℃ 안팎의 고수온해역을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5일 자정까지 초강력의 강도를 유지하겠습니다.

---

1) 제10호 태풍 하이선(HAISHEN)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함.
2)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풍속이 15m/s 이상 나타나는 영역

□ **(변동성)**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**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매우 유동적**입니다.

○ ❶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거나, ❷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경우 예상 진로가 동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○ 이 경우, 태풍과 일본 열도와의 마찰이 강해지거나 건조공기가 태풍 내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**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**이 있습니다.

[기상 전망]

□ **(강수 전망)** 16시 30분 현재 태풍 북쪽의 비구름대에 의해 제주도와 경상도, 전남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, 대전·세종·충남은 **6일 오후(15시)에 비**가 시작되어 8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

- 예상강수량(6일 오후(15시)부터 8일까지): 50~100mm

○ 제9호 태풍 '마이삭' 통과 이후 다시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□ **(강풍 전망) 6일 오후에 제주도**를 시작으로, **대전·세종·충남지역**은 **7일 아침**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, **시속 36~108km(초속 10~30m)**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

○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,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□ **(풍랑 전망)** 6~8일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2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. **서해상에서도 3~6m의 매우 높은 물결**이 예상됩니다.

○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아지면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라며, 해안도로·해안가 저지대는 침수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